

사업구분 : 기본연구	Code 구분 : SS 01	농업경영(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농가경영성과 분석 연구	'02 ~ '03	강원도원 작물경영연구과 한종수 (258-5726)
강원도 오지마을 밭작물 재배실태 및 소득화 방안 연구	'02 ~ '03	강원도원 작물경영연구과 한종수(258-5726) (참여연구원 : 채영길, 장은하, 모영문)
색인용어	밭농업, 조건불리, 작목, 농가소득, 조수입, 경영비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at exert some influence on farm village area by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change by WTO, FTA agreement. Especially, that production situation is disadvantageous than general farm village area among effect for the mountains, the up country analyze . This study examined to the up country in Gangwon area tha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designates, and was as following with the analysis ;

1. Cultivated acreage of the up country was 75.4% compare to common area. The arable land rearrangement rate was 50% level, and field area was 91.5%.
2. Population density of the village was 13.4 persons/km, 41.2% compare to common area. Farming population ratio is 78.7% level.
3. Cultural institution, medical treatment, educational institution are away more than 7km from center of the village and living condition is very inferior state.
4. Main cultivation crops of the village are potato, cabbage, red pepper, corn, and beans etc. This area is potato 3.3 times, red pepper 2.4 times, corn 1.7 times high compare to common agriculture.
5. Farmhouse income of the village was 14,562,000 won, as 61.6% compare to common agriculture.
6. Computer possession of the up country and Internet establishment were each 36%, and farmer's PC practical use of this was expose by 24% level.

##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진전되어 온 산업화의 영향은 농촌의 인구구조, 가족형태, 농가경제, 영농형태, 사회집단 등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사회변동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 되었다. 특히 농촌, 농업이 식량생산이라는 국가안보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1980년 이전까지와 1990년 이후의 농촌·농업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으며, 이는 최근 WTO 및 도하개발의제(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등 국내외적인 여건변화가 농촌, 농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산간, 도서·해안 농촌지역은 지역여건이 불리하고 사회간접 자본(SOC)투자 및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주된 산업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이 미흡하여 생산성이 일반농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8. 정암우 등) 그러나 1990년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업농의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되었다는 점은(1999. 오내원) 영농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및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되었다는 지적이 있다.(1997. 장우환) 즉, 구조조정 정책이의 주요 수단인 농지유통화 사업과 농기계보급사업, 경지기반조성정비사업 등이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래부터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중·산간 및 오지지역의 농업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들 지역은 낮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원 획득 기회의 부족으로 농가소득의 저위는 물론 점차 심화되는 농가의 노령화는 조건불리지역에 산재된 곡간담 및 경사지 농경지의 휴경화 면적이 늘어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소 도시 및 일반농업지역에 비해 생활, 의료, 문화, 교통, 정보통신 시설 등의 낙후로 이농과 인구의 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농업은 공동화는 물론 지역사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산간지역의 쇠퇴는 농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 및 보존이라는 개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들 지역이 농림업의 경제적·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적 공익기능, 정주생활,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이 공존하는 다면적 공간 측면으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중·산간지역 및 도서오지지역의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8년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 기본법」은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제 39조에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규정 및 지원 내역 등을 모색하고자 농림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농림부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즉, 발농업지역에 대한 직불제 실시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오내원 등, 2002)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중·산간지역 농업에 대한 발전방안 및 선행연구를 보면 정명채 등(1996)은 충남지역 4개마을을 대상으로 1985년 이후 변화를 조사하여 산간마을의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취약화, 농지의 휴폐경화, 농업구조 변화의 지체 등을 분석하였으며, 장우환(1997)은 경기도 가평군의 1개 마을대상으로 산간마을의 농업여건과 영농형태의 특성, 농가들의 다양한 존립형태와 발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종혁 등(1996)은 중·산간지역 농업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직불제 도입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정우암 등(1998) 조건불리지역의 영농실태, 생산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시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실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堀内久甫 등(1963)은 산간지역에서 이농에 따른 농가호수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영농규모가 확대되어 가지 않고 경지의 유향화 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小田切徳美(1993)은 중산간지대의 문제를 농산물가격하락을 동반하는 국제화농정속에서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따른 '인구정주력 취약화의 문제'와 불리한 토지 등 자연조건과 함께 영농인력의 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柏雅之(1994)는 조건불리지역의 불리한 자연여건이 다양한 농업발전 형태와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大内力(1993)에서는 경제·사회적 종합력이 낙후된 중산간지역에 대한 직접소득보조의 필요성을 논의 하였고, 이 외에도 是永東彦 등(1994), 小田切徳美 (1999) 등은 일본의 조건불리지역에 EU형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이미 공동화된 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정 부담금 문제와 WTO협정과 의 괴리점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강원도내의 조건불리지역 현황은 지목기준 면적이 45,482ha로 전국의 21.6% (경지면적 기준 28,442ha로 전국의 15.4%)수준이며, 농림부 지정(1988:오지개발촉진법) 오지마을은 춘천시 등 14개 시군에 50개소 마을로 이는 전국 399개소의 12.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총 경지면적 116,288ha중 논이 49,938ha, 밭이 66,350ha로 (2003, 농림통계연보) 밭 면적이 14.2% 넓은 지역으로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건불리지역이 많고 산간 고랭지 등 농업생산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농가소득 및 작목별 재배면적, 농업인구 등에 관한 연구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8년 농림부 지정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가현황, 주요재배작목, 작목별 소득, 마을별 교통여건 및 문화시설, 주민의 주거의식 구조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발농업직불제 전면실시에 따른 강원도내의 조건불리지역 농가보조금 지급기준의 기초 자료와 조건불리지역의 재배 가능작목을 검토하고자 2002-2003년 2개년에 걸쳐 횡성 등 5시군 6개마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1988년 농림부지정 오지마을(조건불리지역)의 강원도내 50개소 중 춘천시 등 5시군 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농업지역은 횡성군 1개마을 선정하여 마을별 10농가씩 총 5지역 6개 마을 60농가를(표 1) 조사 분석 하였으며, 주요 작목은 산간오지에서 주로재배되는 감자, 옥수수, 콩, 배추, 무, 고추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마을여건, 교통편의시설 및 접근성, 인구현황 및 농가현황, 농가경제, 작목별 소득 현황, 사회문화시설 및 정보화시설, 주민의 정주의식 구조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문은 자체 구성조사표에 의거 농가현지 방문 청취 및 설문조사를 병행 수행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지역 및 내용

구분	행정구역	연구내용 및 조사 분석내용
오지마을	춘천시 북산면 물로1,2리	경지면적, 인구 및 농가현황, 작목구성 및 소득
	홍천군 두촌면 과석1,2리	농가경제, 교통편의, 정보통신 이용현황,
	횡성군 강림면 월현1,2리	농장주의 영농의식 구조, 정보인프라 등
	평창군 미탄면 회동1,2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일반지역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 3. 결과 및 고찰

#### 가. 오지 및 일반마을의 경지이용 현황

오지 및 조건불리지역은 일반적으로 밭농업 위주의 농업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대상지역의 경지이용현황(표2)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농업지역 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75.4%였으며, 이를 농지별로 보면 답(畓) 11.5%수준으로 매우 낮은 반면 밭(田)면적은 오히려 4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야 및 기타 면적 비율이 65%가 많은 것은 산간 오지지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총 면적 중 경지이용율이 일반지역에 비해 50%수준으로 조사되어 이들 지역의 주요 농업소득은 밭농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명채 등(1996)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2. 오지 및 일반지역 경지면적 및 이용 현황 (단위 : ha)

구분		경지면적				임야 및 기타	경지율 (%)
		계	논	밭	과수		
오지마을 (A)	춘천시 북산면 물로 1,2리	91.2	10.4	80.1	0.7	970	8.6
	홍천군 두촌면 과석 1,2리	52.6	6.9	43.0	2.7	537.1	8.9
	횡성군 강림면 월현 1리	76.4	3.4	73.0	-	1,380	9.1
	평창군 미탄면 회동 1. 2리	175.5	0.5	175	-	2,008	8.0
	인제군 상남면 상남 3리	125	20	105	-	1,285	9.7
	평균	104	8.2	95.2	1.7	1,236	7.8
일반마을(B)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138	71	65	2	747	15.6
	A/B(%)	75.4	11.5	146	85	165	50.0

한편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지역은 정암우 등(1997) 연구에서 경지면적이 996ha였으나 2002년 현재는 848ha로서 5년 동안 경지면적이 148ha가 줄어든 것으로서 이는 농업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작을 포기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되었다

#### 나. 오지 및 일반지역 인구현황

오지마을은 인구는 마을당 115~310명으로 조사되어 평균 18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지역 대비 70.5% 수준이며, 농업인구비율이 75.9%로서 일반지역에 비해 약 20%

정도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조사지역 중 횡성군 강림면 월현1, 2리와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는 최근 농촌지역에 전원주택 및 변형 펜션 붐으로 인하여 농업 이외의 종사자 및 농촌을 삶의 정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주자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오지마을의 농업인구 구성 비율이 일반지역에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한다는 상식과 상이한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표 3)

표 3. 오지 및 일반마을 인구밀도 및 농업인구 비교 (단위 : 명)

구 분	인 구			인구밀도 (km)	농업인구			농업인구비율 (%)	
	계	남	여		계	남	여		
오지마을 (A)	춘천시 북산면 물로1,2리	115	63	52	4.0	103	55	48	89.6
	횡성군 두촌면 개석1,2리	116	62	54	15.3	92	49	43	79.3
	횡성군 강림면 월현1,2리	127	61	66	15.7	82	44	38	64.5
	평창군 미탄면 회동1,2리	310	158	152	21.1	270	127	143	87.1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256	141	115	10.9	151	83	68	59.1
	평균	185	97.0	87.0	13.4	140	72.0	68.0	75.7
일반마을(B)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262	132	130	32.5	252	114	138	96.2
	A/B(%)	70.6	73.5	66.9	41.2	55.6	63.2	49.3	78.7

#### 다. 생활 및 문화여건

표 4는 오지마을의 생활여건을 조사한 것으로서 오지마을에서 시군의 중심지역으로의 접근성은 최소거리가 17km에서 최대 1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중교통편이 전혀 없는 지역 또는 2-3회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편중함으로써 일반주민의 교통편리에는 큰 도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촌인구 감소 및 이용객이 적어 버스운송업체들의 운행회수를 줄인 것이 원인인바 국가 및 지자체의 경영보조로 운행회수를 최소한 4-5회로 늘어 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춘천시 북산면 물로1,2리 지역은 소양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변방 오지마을로 도로포장은 물론 마을버스운행이 없는 지역으로서 중심지역 접근 때는 교통편을 인근주민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배편을 이용 인근 군 지역으로 이동하여 제차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 이중 교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료 및 교육기관이 있는 면단위 지역으로부터도 최소한 7km 떨어진 지역으로서 삶의 기본을 충족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비교적 농업생산여건이 양호하다고 사료되어 선정한 일반농업지역인 횡성군 공근면의 경우도 교통 및 생활기반 여건이 충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농촌이 앓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명채 등(1996)에서도 산간오지지역의 교통편리 문제점을 본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정암우 등(1998)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의 교통불편은 주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출하 비용 및 시간소요에 따른 품질 저하로 농산물 가격저하의 원인과 출하비용의 과다 손실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 및 문화시설지원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오내원 등 2002)

표 4. 중심지역 접근성 및 생활여건비교 (단위 : km)

구 분	중심지(군)		의료기관(면)			교육기관(면)			
	거리	대중교통 버스(회)	약국	보건소	병원	유치원	초등	중학	
오지(A)	춘천시 북산면 물로1,2리	110	없음	-	1(8)	-	-	분교1(6)	-
	홍천군 두촌면 과석1,2리	45	3	1	1(20)	-	1(20)	2(20)	1
	횡성군 강림면 월현1,2리	32	2	-	1(7)	-	1(7)	1(7)	1
	평창군 미탄면 회동1,2리	17	2	1	1(7)	-	-	1(7)	1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37	7	1	1(8)	-	1(8)	1(8)	1
일반(B)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8	4	1	1(2)	-	-	3(2.5)	1

주) : ( ) km

## 라. 농가 영농규모

오지지역은 일반농업지역에 비해 논면적은 22.2%수준이나, 밭면적은 약 3배에 달하여 이들 지역이 밭작목 중심 지역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표 5)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산간·오지지역은 밭 농업 위주의 지역으로서 일반농업지역에 비해 농가당 경영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본 조사지역에서는 평균 경지면적은 2.4ha로서 일반지역 2.2ha 대비 12% 정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조사농가의 평균치로서 정암우 등 (1998)의 읍면별 전체 통계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횡성군 강림면 월현1,2리 지역은 농가당 4.7ha로 일반대비 2.1배 높았는데 이는 강림면 월현리의 조사농가가 대부분 경영규모가 큰 농가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오지 및 일반마을의 농가 평균 경지면적 비교

(단위 : 평(ha)/호)

구분	경지면적		
	계	논	밭
오지마을(A)			
춘천 북산면 물로1,2리	4,648 (1.6)	2,785	1,863
홍천군 두촌면 과석1,2리	7,187 (2.4)	267	6,920
횡성군 강림면 월현1리	14,014 (4.7)	1,300	12,714
평창군 미탄면 회동2리	5,000 (1.7)	-	5,000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5,593 (1.9)	446	5,147
평    균	7,288 (2.4)	960	6,329
일반마을(B)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6,522 (2.2)	4,322	2,200
A/B(%)	112	22.2	279

주) 오지 및 일반지역 조사농가 평균치임

## 마. 농가경제 및 소득원 구성

표 6은 농가경제 및 소득원 구성을 분석한 결과로서 오지마을의 농가소득은 14,542천원(호)으로 일반농업지역 23,607천원(호) 보다 9,065천원이 적은 61.6%수준이며, '02년 강원도 농가 평균 보다는 7,235천원이 낮은 66.8%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소득원 구성비율을 보면 오지마을은 농업소득 62%, 농외소득 23.4%, 이전소득 14.5%로 나타났고, 일반지역은 농업소득이 88.5%, 농외소득 11.5%이며, 이전소득원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오지지역이 주 산업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일반지역보다 낮은 것은 작목구성이 농업소득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이들 오지지역의 작목은 지리 및 자연 여건이 불리하여 고소득작목 이를테면 시설을 이용한 특수작물(버섯 등) 재배가 어려움 점과 재배기간이 짧아 농경지 이용률이(전, 후작) 낮은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또한 단일작목의

(고랭지 무, 배추) 대량재배시 가격하락으로 인하 손실보존이 - 기타작목으로부터의 어려운 점과 노동력의 노령화 인한, 다양한 부업이 곤란해 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한편 오지지역의 농외소득이 일반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오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및 전원 주택건설로 인한 농한기 인력 시장으로의 노동력 공급이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표 6. 마을별 농가 경제 분석비교 (단위 : 원/호)

구 분	농가경제				농업소득율 (%)
	계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오지(A) 춘천 북산면 물로1,2리	14,325,985	10,985,185	1,540,800	1,800,000	76.7
홍천군 두촌면 과석1,2리	16,428,654	8,891,154	5,037,500	2,500,000	54.1
횡성군 강림면 월현1리	14,492,720	9,245,720	3,890,000	1,357,000	63.8
평창군 미탄면 회동2리	13,426,000	6,926,000	4,250,000	2,250,000	51.6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14,041,080	9,052,680	2,338,400	2,650,000	64.5
평 균	14,542,887	9,020,147	3,411,340	2,111,400	62.0
일반(B)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B) ♪	23,607,050	20,892,200	2,714,850	-	88.5
A/B(%)	61.6	42.9	125	-	-
'02년 강원도 농가소득(평균) C ♫	21,777,273	9,403,746	7,464,507	4,909,020	43.2
A/C(%)	66.8	95.3	45.7	38.9	

주) ♫ : '02년 통계청자료, ♪ : 친환경농산물(쌀) 및 축산, 버섯 주재배 지역임

#### 바. 농가 경영형태 및 재배 작목별 면적

농가의 경영형태 중 농업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목구성은 농가소득의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오지 및 일반농업지역의 주요 재배작목을 분석함으로써 농업소득의 높고 낮음을 구명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주재배 작목 및 면적을 조사 분석한 결과(표 7) 오지마을은 감자, 배추(고랭지), 고추, 옥수수, 콩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지역은 쌀 농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오지마을의 작목별 일반농업 대비 면적 비율을 보면 감자가 3.3배, 고추 2.4배, 옥수수 1.7배 정도 많이 재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오지마을의 주 작물이 감자, 옥수수, 콩 등으로서 이는 수입농산물의 영향이 크고, 원예작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됨과 동시에 고랭지 배추, 무의 경우 가격 등락이 커서 농가 소득향상 특히 농업소득에 저하되는 요인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논문인 정암우 등,(1998)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표 7. 오지 및 일반지역 작목별 재배면적 (단위 : 호/평)

구 분		감자	옥수수	콩	배추	무	고추	쌀
오지(A)	춘천시 북산면 물로1리	-	500	300	-	-	620	2,785
	홍천군 두촌면 괴석1,2리	2,010	585	1,526	640	800	1,083	276
	횡성군 강림면 월현2리	4,260	1,400	1,230	2,590	2,530	420	1,300
	평창군 미탄면 회동2리	450	1,370	450	1,310	-	1,420	-
	인제군 상남면 상남3리	737	610	300	600	1,400	1,500	446
	평 균	1,864	893	761	1,285	946	1,008	961
일반(B)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552	528	700	-	-	420	4,578
A/B(%)		338	169	109	-	-	240	21.0

#### 사. 작목별 생산성 및 조수입 비교

오지마을의 대상지역에서 주로 재배 되고 있는 작목을 일반농업지역과 생산성과 조수입을 비교 검토한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생산성에 있어 감자는 86.3%, 옥수수 95.8%, 쌀이 76.2%수준이었으나, 콩은 오히려 7%가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수입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오지마을의 작목구성은 비교적 노동생산성이 낮고, 틈새시장을 고려한 기능성 특수작목(예를 들면 콩나물 콩, 조, 수수, 강낭콩 등) 생산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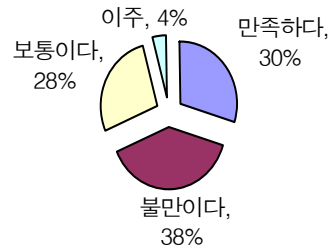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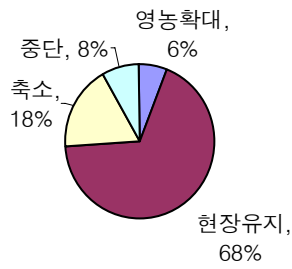
표 8. 오지 및 일반마을 농가호당 작목별 수량 및 조수입 비교

(단위 : kg, 천원./10a)

구분	수 량(kg/10a)			조수입(천원/10a)		
	오지(a)	일반(b)	a/b(%)	오지(a)	일반(b)	a/b(%)
감 자	2,070	2,400	86.3	650	909	71.5
옥수수	548	572	95.8	289	333	86.8
콩	194	180	107	601	580	104
쌀	419	550	76.2	880	1,152	76.4

#### 아. 오지마을 주민의 의식 조사분석

오지마을 주민의 영농활동에 대한 의식 성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그림1에서와 같이 영농규모 확대에 관해서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30%, 불만족이 38%로 나타났으나, 그림 2에서와 같이 주거지를 이주 할 계획에서는



영농규모 확대 여부

주거지에 대한 의견

그림 1. 영농활동 지속 및 현 거주지에 대한 의식도

80%가 현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는 김동원 등(2001)의 연구에서 농촌정착 여부에서 농촌지역에서 계속 살겠다는 응답이 75.1%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며 지금까지 생업을 일시에 전환한다는 부담감과 최근 경기침체로 도시 근로조건이 농촌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생활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10년 이내에 농촌을 떠나겠다는 응답도 20%로서 추후 농촌인구의 감소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울러 오지지역의 정보인프라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TV 94%, 오디오 54%, 비디오 74%를 ,보유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설치는 각각 36%수준이었고, pc보유 농가 중 경영주의 컴퓨터 활용은 24%의 낮은 수준으로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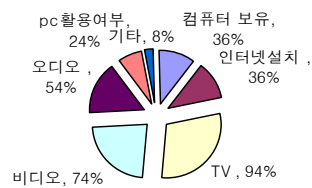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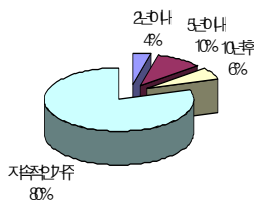


그림 2. 현 주거지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 계획

그림 3. 오지마을의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

#### 4. 적 요

본 연구는 WTO 및 FTA협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여건변화가 농촌·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으로 생산기반이 열악한 중·산간·오지지역의 농업기반이 우선적으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농가경제 활성화 및 소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의 발농업직불제 실시에 따라 농가보조금 지급기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2 ~ 2003년에 걸쳐 농림부 지정 강원도내 오지마을 5

개소와 일반농업지역 1개소를 대상으로 농업인구현황, 교통문화시설, 농가경제, 주요재배작목, 주민의 의식 성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1) 가. 오지마을의 경지면적은 일반지역 대비 75.4%이며, 경지를 50% 수준이었으며, 농지별로는 답(畓)이 11.5%, 전(田)이 1.5배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지마을의 농경지는 밭(田) 면적이 91.5%를 차지하고 있다.
- 나. 오지마을의 인구밀도는 13.4명/㎢으로 일반지역 대비 41.2%, 농업인구 55.6%, 농업인구 비율은 78.7%수준이다.
- 다. 면단위의 문화 및 의료, 교육기관은 시설은 최소한 7k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 라. 오지마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2.4ha로 일반지역 대비 1.1배 넓으며, 논 면적은 960평으로 22.2%, 밭면적은 2.8배가 많았다.
- 마. 오지마을의 농가소득(조수입)은 14,542천원(호)으로 일반농업지역 23,607천원(호) 보다 9,065천원이 적은 61.6%수준이며, '02년 강원도 농가 평균 보다는 7,235천원이 낮은 66.8%수준으로 나타났다.
- 바. 오지마을은 주요재배 작목 면적은 감자, 배추(고랭지), 고추, 옥수수, 콩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농업지역 대비 작목별 비율은 감자가 3.3배, 고추 2.4배, 옥수수 1.7배 정도 많이 재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 일반농업지역 대비 오지마을의 주요작목별 생산성은 10a당 감자는 86.3%, 옥수수 95.8%, 콩 107%수준으로 나타났다.
- 아. 일반농업지역 대비 수량 및 조수입이 높은 작목은 콩으로서 수량은 7%, 조수입은 4% 높은 경향이였다.
- 자. 오지마을 농가의 영농활동의사는 경영규모 현상유지가 68%, 생활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38%로 조사되었으나, 현거주지 지속적으로 생활하겠다는 의향이 80%로 높게 나타났다.
- 차. 오지지역의 정보인프라는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설치가 각각 36%였으며, 이중 경영주의 pc 활용은 24%수준으로 나타났다.

## 5. 인용문헌

김동원, 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농촌경제 제24권 제1호 p 81-103.

농림부, 2003. 농림통계연보. p 42-43.

오내원. 1999,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농촌경제. 제22권 제1호 pp 89-104.

오내원, 김태곤, 박시현, 장우환, 이을경. 2002.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세부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정명채, 정기환, 박대식, 박병호, 1998.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 1998년도 특별분석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우암, 이병호, 김경량, 소순열, 오내원, 김종선. 1998.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존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오내원, 최경환, 박개식, 이상문 1996. 한국 농촌사회의 장기변화와 발전 산간마을의

사회경제 변화(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우환, 1997. “한국 중산간지역의 구분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堀内久甫, 中安定子, 今村奈良臣. 1963. 「學家離村」, 農政調査委員會.

小田切徳美, 1993. 「日本農業の中山間地帯問題」. 農村統計協會.

柏雅之, 1994. 「現代中山間地域農業論」, 御茶の水書房.

大内力편, 1993. 「日本農業年報 40: 中山間地域對策」. 農林統計協會.

是英東彦, 津谷好人, 福士正博. 1994. 「EUの農政改革に學ぶ」, 農山漁村文化協會.

小田切徳美, 1999. 「中山間地域における新たな政策課題」, 全農林・農林水産政策研究所, 政策研究所情報. No 12.

##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기초자료 제공

- 오지 및 조건불리지역 농업소득구성 및 작목별 조수입 현황, 주민의 영농의식 성향분석으로 발농업직불제 실시에 따른 산정기준자료 제공 : (농가보상금) 산출 근거